

□ 보고

평양을 다녀오면서

임정혁

일본 조선대학교 이공학부

필자는 올해(2008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필자가 근무하는 일본 조선대학교 이공학부 3학년생을 인솔하여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평양 시내와 백두산, 묘향산, 개성, 판문점 등의 참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2003년 이후 5년만의 북한 방문이었기에 그 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사 연구의 동향을 탐색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자고 하였다. 특필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나 몇 가지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기에 이 지면을 빌려 소개하려고 한다.

5년 전의 방문은 “제2차 세계조선학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그 대회에는 서울에서 직통 비행기로 많은 학자들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는 전상운 선생님과 송상용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남측 학자들의 참여는 성사되지 못했었는데, 그때 『조선기술발전사』의 필두 집필자인 최상준(崔尙浚) 선생님을 만나 전상운 선생님의 인사를 전하고, 그 책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출판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¹⁾

그 책의 집필자들은 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들로서, 1960년대에는 『조선기술발전사자료집』을 간행한 바 있었지만,²⁾ 시대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무원칙·무차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되었다. 이 책의 존재는 1990년대 북한에서 과학 중시가 거론되면서 김정일 국

1) 이에 관한 자세한 사연은 줄고, “한국과학사학회에 참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5권 제1호(2003), 83-93쪽을 보라.

2) 줄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과학사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1권 제1호(1999), 121-128쪽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방위위원장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가치를 인정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의 집필자를 중심으로 학자들을 모으고 다시 우리나라의 기술사를 체계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모두 다섯 권으로 출판된 것이 바로 『조선기술발전사』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유감스럽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 최상준 선생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는데, 대학의 관계자로 부터 정년퇴직한 요새도 누구보다 일찍 대학에 나와 일을 보신다는 것, 과학사 관계로서는 신문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또 이번 방문시에 『물리학의 발전』의 저자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최순철(崔淳哲)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면 했는데 역시 일정상 그렇게 못하고 관계자로부터 물리학사에 대한 소책자를 몇 권 집필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³⁾

결국 이번에는 과학사 연구자로서는 조선역사박물관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화학사를 연구하는 임진숙(任眞淑) 선생밖에 만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 분을 통해서 흥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그 자신이 작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학사』를 집필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는 것이다.

제1편 화학의 주요발전단계

제1장 고대 및 중세의 화학 / 제2장 중세에서 근대로의 과도시기의 화학 / 제3장 근대화학의 기초축성

제2편 화학분과들과 화학공업의 발전역사

제1장 유기화학의 발전 / 제2장 무기화학의 발전 / 제3장 물리화학의 발전 / 제4장 분석화학의 발전 / 제5장 근대화학공업의 발전

부록: 원소의 이름과 발견 / 노벨화학 수상자들 / 화학사 연표

논문은 인쇄물과 함께 CD화하여 여러 가지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화학사 사전의 형식도 갖추고 있다. 논문의 심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원 함흥분원의 화학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시도가 크게 평가되고 또 각 대학들에서 화학사강의의 중요성도 인식되어 내년도부터 실현된다고 한다.

임진숙 선생부터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나라 중세과학기술사』(1990)의 저자인 리용태 선생에 대한 것이 인상이 깊다. 우선 그 동안에 필자가 학

3) 필자가 쓴 서평이 『한국과학사학회지』 29권 1호 (2007) 131-135쪽에 게재되어 있다.

인한 리용태 선생의 경력을 적어보자.

1922. 3. 28.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
 1945. 9.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물리학과 졸업
 1945. 9. - 1946. 9. 경성대학 예과 교수
 1946. 10. - 1947. 8. 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 교원
 1947. 9. - 1951. 10. 레닌그라드공과대학 물리학부 연구생
 1951. 11. - 1952. 9. 김일성종합대학 물리수학부 학부장
 1952. 10. - 1955. 8. 교육성 고등교육국 과학연구부 부장
 1955. 8. - 1961. 10.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과학서기
 1961. 11. - 1984. 8.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변증법적유물론연구실 실장
 1984. 8. 사망

레닌그라드공과대학에서 유학할 때 쓴 학위논문이 “로시아과학자들이 전자기학발전에 논 역할”인데, 이는 남북에서의 최초의 본격적인 과학사 논문이다. 리용태 선생은 1961년부터 사회과학원에 소속하였는데, 사회과학원에서 『조선전사』 전 50권을 편찬하였을 때 매 시대마다의 과학기술을 담당 집필하신 분이 바로 리용태 선생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원고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사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하였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이성규 씨는 부친의 유고를 책으로 출판하기 위해 여러 출판사를 찾아가 타진해보았으나 과학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이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그 책의 가치를 인정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저자가 세상을 떠나지 6년 만의 일이었다. 『우리나라 중세과학기술사』는 “홍이섭의 『조선과학사』 이후 우리나라 전체 역사와 과학기술의 전 분야를 함께 다룬 유일한 통사”라고 평가받고 있으니 출판되어서 정말 다행이다.⁴⁾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과학사 연구와 직접 연관은 없으나 두 가지 기쁜 일이 있었다. 하나는 호암 문일평에 대해 외손자 쓴 수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발췌를 옮겨 쓸 수 있었던 것이다. 문일평이 식민지시기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항하여 대중 속에서 ‘조선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문필활동을 벌인 당시를 대표하는 문화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가 남긴 저작은 『호암전

4) 신동원 편,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2』 (한겨레출판, 2007), 48쪽.

집』, 『호암사화집』, 『소년역사독본』으로 출판되었는데, 『호암전집』에 대해서는 필자가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달리 한국 서적은 도쿄에서는 고려서림(高麗書林)과 삼중당(三仲堂)에서만 구할 수 있었다. 고려서림은 자기 회사에서도 책을 출판하곤 하였는데, 전상운 선생님의 『한국과학기술사』 일문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편 삼중당은 고서도 취급하였는데, 언젠가 『호암전집』을 보았다. 그 때는 호암이 어떤 사람인가도 몰랐었는데,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 외교사 등 흥미를 끄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쪽에는 1948년 3월 31일 발행으로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주 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격은 전 3권에 12,000엔으로, 싸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비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훗날 우리나라 과학사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여 홍이섭의 『조선과학사』를 읽다가 이 책이 어떤 학문적 토양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인용문에서 두 학자를 은사,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쓰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 두 분이 호암 문일평과 위당 정인보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고 “일제시기 내일을 내다 본 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글도 써 보았다.⁵⁾ 그러니 외손자가 호암에 대해서 쓴 수기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 보았는데, 과연 거기에는 유가족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흥미 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소개되어 있었다. 특히 문일평이 급사한 것은 일본 경찰에 의한 독살이라고 가족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문일평이 김일성 주석의 부친인 김형직 선생의 지도를 받아 반일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은 아마도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다. 최근에 1934년의 문일평의 일기가 출판되었는데, 이 수기도 문일평 연구에서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⁶⁾

또 하나 기쁜 일이란 새로 복원된 개성의 오관산 영통사를 구경하였을



〈사진1〉

5) 任正燄, 『朝鮮科學文化史へのアプローチ』(明石書店, 1995), 135-141쪽.

6) 문일평 지음, 이한수 옮김, 『문일평1934』(살림출판사, 2008).



<사진 2>



<사진 3>

때의 일이다. 우연히 길 도중에 ‘서경덕묘 60M’(사진1)라는 표시를 보았다. 그런데 안내해준 사람에게 물어 보았으나 자기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영통사에 가고 그곳 해설원(연구사)에 물어 보니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요한 정적에 깃든 양지바른 산중턱에 묘는 세워져 있었는데(사진2), 바라보면 화담 마을은 인공호수에 잠겨 있었다(사진3). 송도삼절(松都三絶)의 한 사람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서경덕은 우리나라 중세 철학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이기론’에서 새로운 경지에 이른 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상수학적 우주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홍대용의 우주론의 연구로부터 우리나라 과학사 연구에 발을 놓게 된 필자로서는 언제인가 서경덕에 관해서 깊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그의 묘를 보게 된 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끝으로 여담을 하나만 쓰기로 하자. 평양에 있는 동안은 대동강변에 자리 잡은 평양호텔에 숙박하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견학 출발시간까지 으레 “로동신문”을 보고 지냈는데, 추석의 14일부에 “측우기와 비내린량 관측”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로동신문”은 조선 노동당의 기관지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주로 취급한다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사적인 기사가 실린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래서 임진숙 선생에 물어 보았더니 가끔 그런 부류의 기사가 게재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방문은 필자의 업무에 의한 것이었으나 개별적으로도 많은 자극을 받은 방문이었다. 가능하면 다시 연구사업으로 방문을 하고 싶는데, 내년 8월에는 다시 평양에서 세계조선학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좋은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맺으려고 한다.